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Every word of God is pure: he is a shield unto them that put their trust in him. Add thou not unto his words, lest he reprove thee, and thou be found a liar.”(Proverbs 30:5-6)

목 차



성경 교리

성경	3
하나님	5
사탄과 천사들	9
창조	10
사람	10
예수 그리스도	13
구원	15
성령님과 성화	18
하나님의 법	20
교회	23
재림과 휴거	26
천년 왕국	29
영원 상태	30
시민 생활	31
성경 교리의 중요성	33

교리란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참과 거짓을, 생명과 사망을 나누므로 교리가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교리 문답’(Catechism)을 비성경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성경 신자들은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즉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정리된 성경 교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경적 교리 문답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모은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바른 성경 교리들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일은 중요하며 어른들도 이런 교리 문답을 통해 믿는 바를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성도들 가운데서 높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샬롬.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성경

1.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민24:4, 16; 시12:6-7; 119:130).

2.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합니다(신6:7; 잠30:5-6; 벧후1:20-21).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사람에게 생명 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합니다(요5:39; 17:17). 끝으로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합니다(딤후3:16-17).

3.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 성경으로 나뉩니다.

4. 성경은 무엇을 다룹니까?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과거의 영원'과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를 다룹니다.

5.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구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엡 1:4-6; 요20:30-31; 요일5:20; 계4:11).

6. 성경의 전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과 성품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 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시19:1-6; 119:130; 요17:17; 롬1:18-32).

7.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영감(靈感)이라고 합니다(딤후3:16). 영감은 숨을 내쉬면서 단어들을 붙어 내는 것을 뜻하므로 영감은 기록된 단어들에 있지 그것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오류가 없습니다.

8. 성경은 처음에 무슨 말로 기록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 성경은 당시의 일반 통용어였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9. 성경기록의 총체적 축자 영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총체적 축자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숨으로 붙어내신 것을 뜻합니다. 총체적 축자 영감은 단어들뿐만 아니라 글자를 구성하는 점과 획에까지 미칩니다.

10. 총체적 축자 영감을 보여 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1. 정경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잣대로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가리킵니다. 천주교회의 외경은 처음부터 정경이 아닙니다.

12.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성경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자신이 숨을 붙어내신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오류가 없이 영원히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시12:6-7; 마24:35).

13. 성경의 모든 단어들의 영구 보존을 보여 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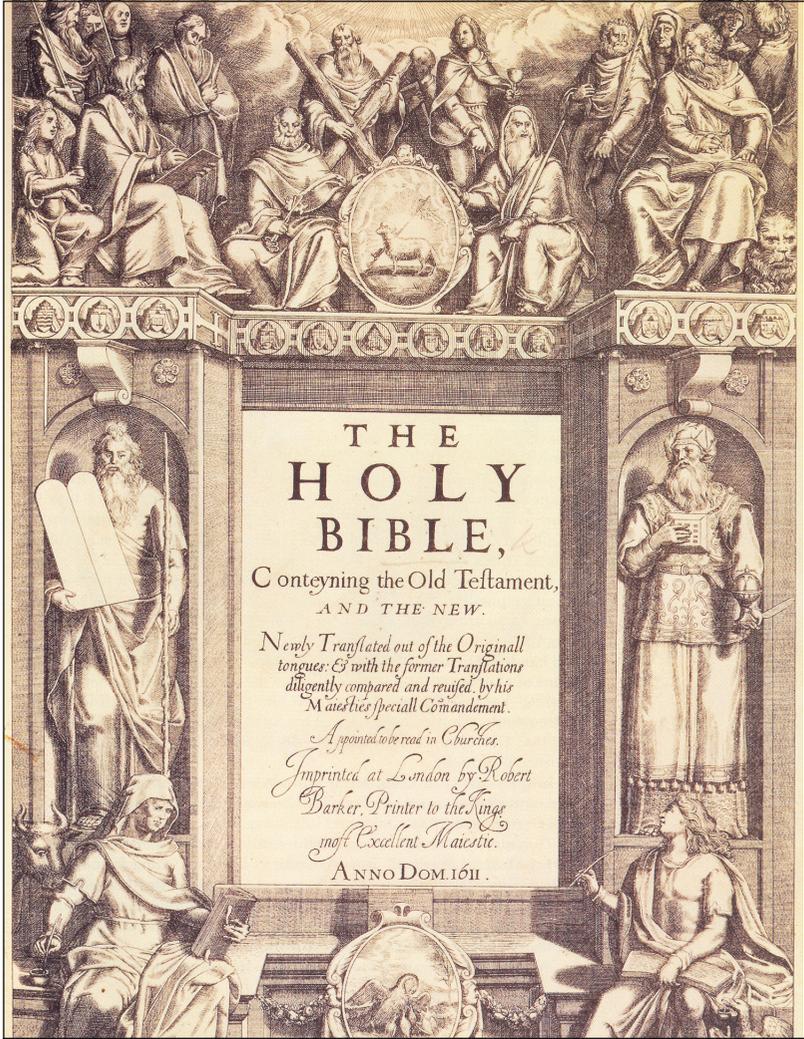
그것은 시편 12편 6, 7절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14. 하나님의 성경 보존 약속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1611년에 영국에서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져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과 교리와 다른 성경들의 번역의 기준이 된 무오한 성경입니다.

15.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우수하고 번역자들이 우수하며,



1611년 킹제임스 성경 표지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툼스대역 한영성경, 기독교지혜사, 부록 1, 4쪽, 1989).

형식적 일치 번역 기법이 우수하고 그 결과 신학이 우수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이런 면에서 다 부족합니다.

16.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절대 확실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를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며, 믿음과 교리와 실행에서 한국 성도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 개역한글/개역개정과 NIV 등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현대 역본들의 근본 문제는 번역의 대본으로 천주교 소수 사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소수 사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구원, 지옥 등의 중요한 교리에서 심각한 부패를 보이므로 복음의 초기부터 성경 신자들은 소수 사본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8. 성경은 어떤 원칙에 의해 해석해야 합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문맥에 따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해(靈解)를 하면 사람마다 달리 뜻을 정하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 성경 해석의 원칙을 보여 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20. 성경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음을 보여 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15장 4절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21.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성경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딤후3:17).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성경은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

22.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뜻합니다(출 3:14; 시90:2).

23. 하나님에게 시작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시93:2; 계4:8).

24. 하나님도 언젠가는 죽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창21:33; 계4:9-10; 5:14).

25.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존재합니다(사45:6, 18, 21-22; 딤후2:5). 신들로 불리는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파멸에 이를 존재들입니다.

26. 왜 하나님은 하나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둘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완전한 존재가 서로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7. 한 하나님은 몇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며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마3:16-17; 28:19; 고후13:14; 요일5:7).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이십니다(신 6:4; 엡4:6; 딤후2:5; 약2:19).

28. 한 하나님의 세 인격체는 누구입니까?

한 하나님의 세 인격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입니다(마28:19; 요일5:7). 여기서 인격체란 지성, 감성, 의지를 갖춘 존재를 뜻합니다.

29. 한 하나님의 세 분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한 하나님의 세 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들로서 기원이 없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무한한 권능과 영광 등의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시90:2; 요 10:30; 행5:3-4; 요일5:7).

30. 하나님은 원래 어떤 형태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요4:24). 영은 충만하게 하고, 생기를 주는 생명의 핵심 원천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닿는 곳에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생동감이 생깁니다.

31.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모든 곳에 계시며 또한 천국에서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대하2:6; 시139:7-12; 잠15:3).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 부릅니다.

32.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를 보고 계십니다(대하16:9; 잠15:3; 렘23:23-24).

33.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욥34:21; 시139:1-4; 마10:29-30).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 부릅니다.

34.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창 18:14; 렘32:17; 마19:26).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부릅니다.

35.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신30:11-16; 수1:8).

36.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속성은 거룩함입니다(레11:44-45; 벧전1:16).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공의를 잘 보여 줍니다.

37.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십니다(출34:6; 신4:31; 시136).

38.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출 34:6; 고전15:10; 딤후1:13-14).

39. 사람과 달리 항상 믿음직하게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거짓이 없고 믿음직하십니다(신7:9; 시89:1-2; 예3:22-23; 딤후2:13).

40.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므로 항상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창조물과 달리 그분 자신에게서 변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말 3:6).

41.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저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요1:18; 롬8:14-15; 갈 4:6).

사탄과 천사들

42. 천사들을 포함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그룹, 스랍, 천사, 순찰자, 정사, 권능, 강력, 통치 등의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과 우주의 창조 이전의 영원 속 어느 시점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창3:24; 욥38:7; 사6:2; 겔1:4-25; 단4:13; 엡1:21).

43.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악한 영으로서 하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적자이며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욥1:6-7; 요8:44; 계12:9).

44. 사탄도 한때 선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 이전에 사탄은 이미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으며 그의 속에서 불법이 발견되기까지 그는 자기의 길들에서 완전하였습니다(겔28:11-19).

45. 사탄이 하나님의 선한 영적 존재였을 때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사14:12).

46.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루시퍼가 하나님의 선한 종이 아닙니까?

루시퍼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기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위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내쫓으셨습니다(사14:12-15; 계12:7-9).

47. 오늘날 루시퍼는 무엇이라 불립니까?

오늘날 루시퍼는 사탄 또는 마귀(the devil)라고 불립니다(눅10:18; 요일3:8; 계12:9).

48.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사탄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그를 창조한 창조자로서 완전히 격이 다르므로 사탄은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됩니다(욥1:6-12; 요일4:4).

49.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항상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대상21:1; 요8:44; 엡6:11-12).

50. 마귀들(devils)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들은 원래 천사들이었으나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에게 동조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더러운 영들입니다(신32:17; 막5:2; 계12:4-9).

51. 귀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넋을 뜻하는 귀신은 샤머니즘의 산물이며

성경적으로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더럽고 악한 마귀들과 그들의 대장인 사탄 마귀만 존재합니다.

52.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으로서 사람보다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성경의 천사는 다 젊은 남자이며 날개 달린 천사나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등은 없습니다. 특별히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입니다(시8:5; 103:20; 히1:14).

창조

53. 우주 만물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창조되었습니까? 진화되었습니까?

우주 만물과 그 안의 모든 것은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창1:1). 진화론은 마귀가 가르치는 거짓 이론입니다.

54.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창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창1:21, 27).

55. 성경의 창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의 특별 창조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오직 말씀으로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공간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창1:1-31; 느9:6; 요1:3).

56. 구약의 4,000년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4,000년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약 1,000년으로 구성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기간의 중간에 즉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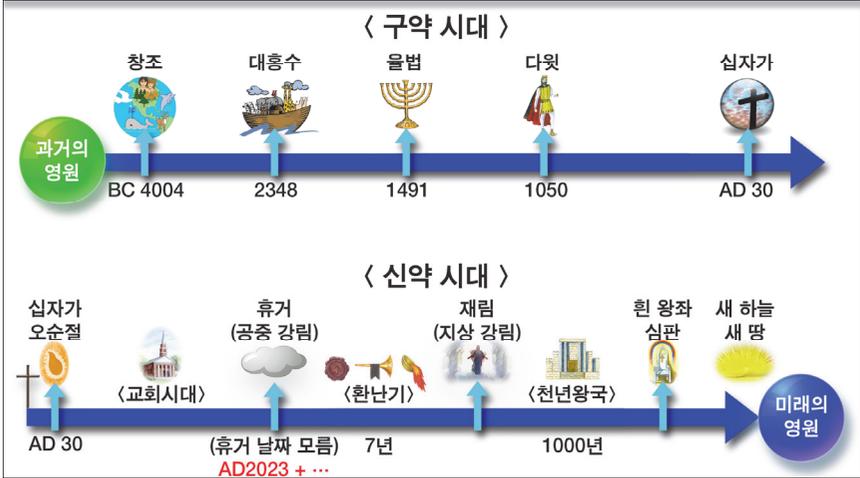
57. 사람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 6,000년 전에 특별 창조의 옛세 중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흙을 빚어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창1:27; 욕33:4).

58.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적/도덕적 성품을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사람은 죽을 수 없는 혼을 가진 존재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창1:27; 벧후1:4).

인류역사 타임라인



59.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대상 16:28-29; 롬11:36; 고전10:31; 엡1:6, 12).

60.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미6:8; 마5:16; 요15:8; 요일5:3).

61. 당신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으며 항상 저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시117:1-2; 146:5-10).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단3:17-18).

62. 우리의 첫째 조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첫째 조상은 아담과 이브입니다(창2:7, 18-22; 3:20).

63.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육체 외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결코 죽을 수 없는 혼과 영을 주셨습니다(창2:7).

64. 당신은 육체뿐만 아니라 혼과 영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결코 죽을 수 없는 혼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전12:7; 막8:36; 살전5:23).

65. 당신이 혼과 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66.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어떤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창1:27-31).

67.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창2:16-17).

68.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창3:6).

69. 우리의 첫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의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창2:17; 3:6).

70. 아담과 이브가 그런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브를 유혹한 자는 사탄이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창3:1-6).

71.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자기들의 수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려고 노력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창3:8-24).

72.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에 따라 그의 모양대로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창5:3; 롬5:14; 6:23; 엡2:3).

73.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보시고 어떻게 처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즉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처벌을 내리셨고 결국 아담은 육체적으로도 930세까지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창3:17-24; 창5:5; 롬5:12).

74.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요일3:4).

75.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대상10:13; 마15:3-6).

76.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으며 그분에게서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롬3:23).

77. 모든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며 궁극적으로 사망입니다(창2:17; 시89:30-32; 갈3:10).

78. 사망 혹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망은 분리를 뜻합니다. 첫째 사망, 즉 육체의 사망은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창35:18; 전3:19-21).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서의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그분의 임재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며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계20:11-15).

79. 사람은 왜 죽습니까?

첫째 사망, 즉 몸이 죽는 것은 첫 사람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롬5:12).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뜻하는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롬3:23). 이 사망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80.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없는 존재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공의가 성취되게 하는 대신 속죄입니다(창3:21; 출12:21-23).

81.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대신 속죄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대신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죄는 없지만 완전하지 못하므로 짐승의 희생 예물로는 잠시 죄를 가릴 수는 있었어도 완전히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레1:1-17; 17:11, 14; 히10:1-4).

82. 완전한 희생 예물이 우주 공간의 전체 창조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들은 죽을 수 없으므로 안 되고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 안 되며 짐승은 불완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제거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히2:16-18; 10:5-10).

83.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하게 대신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죄들의 사면을 위해 짐승의 희생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번 속죄라고 말합니다(히9:22, 26; 10:14, 18).

84.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란 무엇입니까?

처녀 탄생이란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수태된 것을 뜻합니다. 처녀 탄생에 의해 예수님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지니지 않은 채 이 땅에 태어나서 무죄한 삶을 사셨습니다(눅 1:34-37).

85.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피는 태아가 형성된 뒤, 태아 자신의 조혈 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지므로 수태부터 출생까지 산모로부터 태아에게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86.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행4:12).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한 인격체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모두를 완벽하게 가지셨던 분이십니다(빌2:6-8).

87.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88.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순결한 분이십니다(사53:9; 고후 5:21; 히4:15; 7:26; 벰전2:21-23).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89.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죄와 악과 불법을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키셨고 또 동시에 죽기까지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사53:10-11; 합1:3; 고후5:21; 히9:11-14; 요일4:4).

90.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요3:16; 딤후2:6; 요일2:2).

91.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롬8:3; 빌2:7-8; 히2:9-18; 5:8-9).

92.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무덤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은 기독교의 상징이고 핵심이며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확실한 증표입니다(마28:1-10; 막16:1-20; 고전15:1-58).

93.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천국, 즉 셋째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행1:9; 7:56; 엡1:19-21; 히4:14-16; 7:25).

구원

94.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사55:7; 눅13:3; 24:47; 요3:16; 6:47).

95. 회개란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란 죄를 미워하고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대하7:14; 행20:21; 고후7:9).

96.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므로 감정이나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무리 많이 참거나 힘써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97.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요3:16; 5:39; 행4:12; 롬3:22-25; 갈2:16; 빌3:9; 히12:2).

98. 당신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죄인임을 보여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요3:5-6; 16:7-11; 고전2:9-12; 딤텔3:5).

99.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혔다가 성경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고전15:1-5).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롬 1:16-17).

100.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롬10:13-17).

101. 구원받은 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죄인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바뀌며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봉인하시므로 아무도, 어떤 것도 그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요3:16; 10:29; 엡1:13; 히7:25).

102.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극심한 죄를 짓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를 죽여서라도 더 이상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히12:5-11; 요일5:16).

103.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무조건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이므로 이런 부당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죄들로 인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람은 아담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며,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104.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갈2:16; 엡2:8-9; 딤후3:4-7). 주일성수, 십일조와 헌금,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교회 봉사, 선한 행위 등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일 하나로 족합니다.

105. 그러면 왜 예배 참석, 헌금, 봉사, 전도 등의 선한 행위를 합니까?

그런 선한 행위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엡2:10).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 보상해 주십니다(고전3:10-15; 계22:12).

106.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며 거룩히 구별하십니다(롬8:28-30; 고전6:11; 갈2:16; 딤후3:5-7; 히2:9-11).

107. 칭의 즉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들을 다 용서하셔서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롬3:24-25; 8:1; 고후5:19, 21).

108. 당신은 어떻게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이루신 일과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해 오직 그분의 의로 인해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롬3:25-28; 갈2:16).

109. 신약 시대는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신약은 새 상속 언약의 줄임말입니다.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므로 성경적으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신약 시대를 여셨습니다(롬10:4; 15:8-10; 갈4:4-5; 히9:16-17).

110.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창15:6). 시대에 상관없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히11:6). 특별히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행 17:30-31).

111.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레1-5; 히11:4). 그런 희생 제물은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요1:29, 36; 히9:11-14).

112. 어린아이나 정신 지체 장애인 등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인격체로 회개 보고할 수 없는 어린아이나 정신 지체 장애인 등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회개 보고 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성화

113.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마28:19; 요14:16-17; 행5:3-4; 고후13:14).

114. 죄인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또한 죄를 깨달은 죄인이 회개하고 믿기로 하면 그에게 들어와 성령 침례를 주시고 그 사람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그 사람을 봉인하십니다(요14:16; 16:8; 고전12:13; 엡1:13).

115. 성도들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서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그들을 채우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십니다(요14:26-27; 16:13-14; 롬8:14; 엡5:18).

116. 성화, 즉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화란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행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고전6:11, 19-20; 엡1:13; 살전5:23; 딤후2:19-21; 히13:21).

117.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저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 제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제 자신의 욕심을 거부할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롬8:13; 갈5:16-26).

118. 성화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화의 두 가지 요소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롬6:11; 8:13; 갈2:20; 골3:5).

119. 성령님의 영적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영적 선물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위와 성장을 위해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롬12:3-8; 고전12:1-11).

120. 성령님의 영적 선물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영적 선물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들의 행복을 위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고전12:7, 11).

121. 성령님의 영적 선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영적 선물에는 대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주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것, 공회를 베푸는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기적들 행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타 언어로 말하는 것, 타 언어를 통역하는 것(롬12:6-8; 고전12:8-11)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도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엡4:8-12).

122. 대언은 무엇입니까?

대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초기에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주후 90년경에 성경이 완성되면서 직통 계시 선물인 대언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고전13:8; 벧후1:20-21).

123. 방언(타 언어)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외국어를 뜻합니다. 복음의 초기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외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선포자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하게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행2:1-13; 고전14:18). 즉 방언은 믿지 않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고전14:20-23).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다른 말로 번역됨에 따라 방언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방언을 통역하는 선물도 그치게 되었습니다(고전13:8).

124. 병 고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선물 역시 복음의 초기에 복음을 확증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기적의 선물입니다(막16:17-18; 고후12:12; 히2:3-4). 그러나 성경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은혜의 왕좌로 나가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간구해서 받게 해 주셨으므로 이 선물도 그치게 되었습니다(딤후4:20; 히4:16; 요일5:14).

125. 사도들의 시대에는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대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기적들 행하는 것 등의 선물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 그치게 되었고 사도와 대언자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26. 그러면 이런 선물들을 강조하는 현시대의 오순절 은사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운동들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행하는 것으로 기록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익한 일들입니다.

127.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님의 열매가 생깁니다(갈5:22-23). 성령님의 선물이 있어도 성령님의 열매가 없으면 본인과 주변 지체들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128.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마7:7-8; 요16:23; 빌4:6; 요일5:14).

129.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요16:23).

13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기도 끝에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전 인격체를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타 종교에서 이교도들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고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의 내용에 따라 합당하게 기도하라고 모범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마6:9-13).

132. 주기도문을 예배나 모임의 끝에 외우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원래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신약 시대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를 뿐이지 그대로 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마6:7-8).

하나님의 법

133.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열 가지 명령, 즉 십계명을 주셨습니다(출20:1-17).

134. 십계명은 때때로 무엇이라 불립니까?

그것은 종종 모세의 율법이라 불립니다(수8:31; 말4:4; 눅24:44; 행13:39).

135. 십계명 가운데 처음의 네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출20:1-11; 마22:37-38).

136. 나머지 여섯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출20:12-17; 마22:39).

137.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마22:37-40).

138.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모든 사람이 저의 이웃입니다(눅10:25-37; 갈6:10).

139.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40.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41. 그러면 십계명의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출20:3).

142. 첫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출34:14; 신26:17; 마4:10).

143. 둘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출20:4-6).

144. 둘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출20:23; 신6:13-18; 12:30-32).

145. 셋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입니다(출20:7).

146. 셋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것 즉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경홀히 여기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시29:2; 107:21-22; 138:2; 계15:3-4).

147. 넷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출20:8-11).

148. 넷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일주일 중 하루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분하신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레19:30; 신5:12).

149.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중 어느 날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까?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 즉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날인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요20:19-26; 행20:7; 고전16:1-2).

150. 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그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묻히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마28:1-6; 막16:1-6; 눅24:1-6; 요20:1-9).

151.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주일에는 영과 혼과 몸의 안식을 얻기 위해 공예배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내야 합니다(레23:3; 사58:13; 눅13:10-13; 행15:21; 16:13; 17:2).

152. 다섯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출20:12).

153. 다섯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엡6:1-3).

154. 여섯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출20:13).

155. 여섯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창9:6; 마5:21-22).

156. 일곱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출20:14).

157. 일곱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간음하지 말 것과 몸을 순결하게 지켜 음행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고전7:2; 엡5:3-4).

158. 여덟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출20:15).

159. 여덟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 것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히 여길 것 그리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엡4:28).

160. 아홉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입니다(출20:16).

161. 아홉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잠14:5; 속8:16; 벧전3:16).

162. 열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출20:17).

163. 열째 명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갈 5:26; 골3:5; 빌4:11; 히13:5).

164. 십계명은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은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안의 원리와 교훈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신29:29; 수1:7-8; 롬13:8-14; 갈3:21-26).

교회

165.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마16:18; 엡1:23; 3:5-12).

166.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의 후반부에 이르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 이후에 신약 교회는 오순절 날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 이 땅에 탄생하였습니다(마16:18; 행2:1-47).

167.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한 지역의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전자는 교회 시대 전체의 구원받은 자들,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며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 형태의 교회’입니다(마16:18; 엡1:23). 반면에 후자는 지역 교회로서 ‘보이는 형태의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교회가 다 나오며 앞뒤 문맥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고전 1:2; 계1:4, 11).

168.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와 증인이 되어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마28:19-20; 행1:8; 고후5:18-20).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요20:21).

169. 지역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역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 교육과 교제를 통해 성장과 충전과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선포하게 하는 곳입니다(행13:1-3; 엡4:11-12).

170.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 성경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행20:28-32; 고후9:6-8; 딤후2:1-2; 히 10:23-25).

171. 성도의 분리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분리란 성도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거룩히 분리되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속적인 것들과 현대 교회의 종교일치 운동, 오순절 은사주의, 부도덕, 타협, 그리고 무질서한 형제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롬16:17-18; 고후6:14-18; 엡5:11).

172. 교회에는 어떤 직무 수행자가 있습니까?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의 두 직무 수행자가 있습니다. 목사는 감독 혹은 장로로 불리기도 하며 양 떼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 말씀 선포와 기도예 힘쓰는 직무 수행자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종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일을 담당하는 직무 수행자입니다(행20:28; 딤후3:1-13; 딤후1:5-9; 벰전5:1-4).

173. 목사와 집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목사와 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적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결혼하여 한 아내를 둔 남자 성도여야 합니다(딤후3:1-13).

174. 교회에는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까?

성경에 따라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마28:19; 고전11:23-26).

175. 그 두 가지 규례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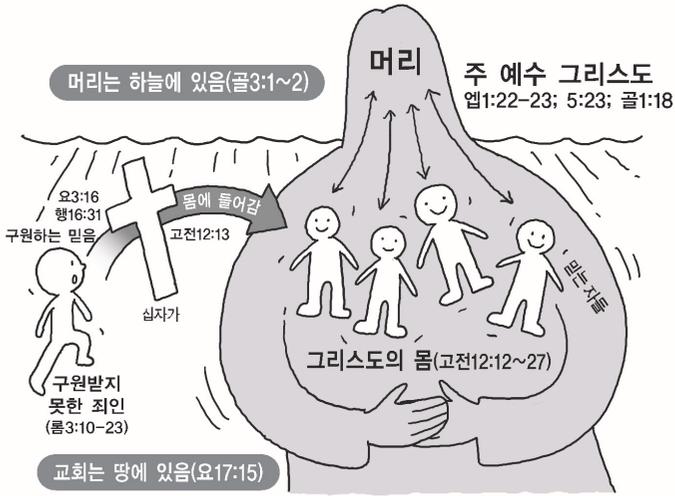
그 두 가지 규례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마26:26-28; 28:19).

176. 누가 그 규례들을 정하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정하셨습니다(마26:26-28; 28:18-19).

177. 주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규례를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된 것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 또 그들이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규례들을 정하셨습니다(마28:19-20; 행2:38-41; 고전11:2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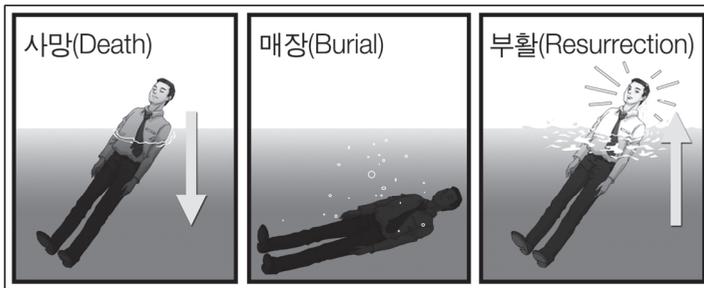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둔다(침례의 의미-고전12:13).

178. 침례에서 물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물은 사람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막1:9-10; 행 8:36-38). 그러므로 침례에서는 성도의 몸이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깊이의 물이 필요합니다.

179.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분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어 보여 주는 표시입니다(롬6:3-11; 갈3:27; 골2:12). 그러므로 물을 뿌리는 세례로는 성도가 예수님과 동일시되었음을 보여 줄 수 없습니다.



180. 침례는 어떤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침례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마28:19).

181. 주의 만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지며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마26:26-28; 막14:22-25; 눅22:17-20; 고전11:23-26).

182. 주의 만찬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고전11:28-29).

183.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것은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포도즙’입니다(마26:26-28; 막14:22-25).

184.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찢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마26:26-28; 막14:22-25; 눅22:17-20).

재림과 휴거

185.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오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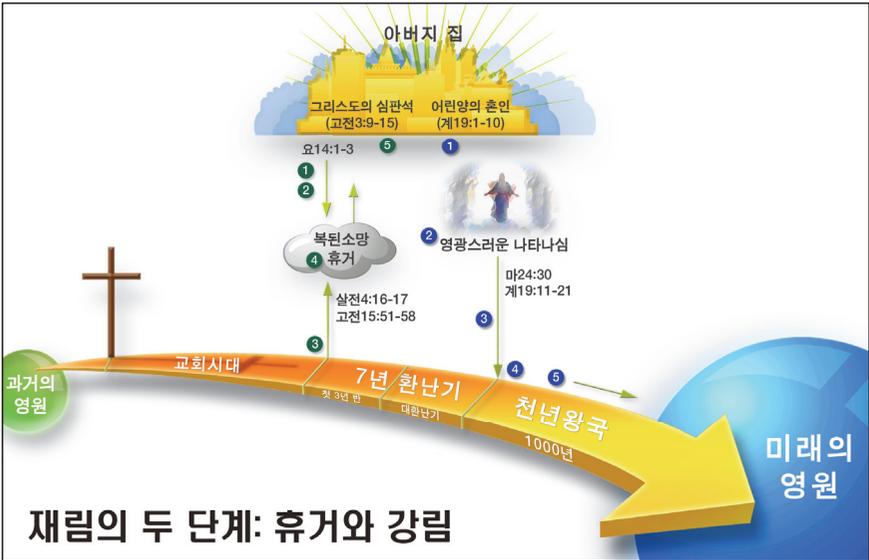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부들인 신약 성도들을 데려가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요14:1-3; 행1:11).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마 23:37-39; 스2:9-10).

186.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마24:42, 50; 25:13).

187. 예수님의 초림과 비교하여 재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교회 시대가 열리기 전에 3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신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 시대가 끝난 뒤 7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뜻합니다.



188. 초림과 더불어 재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그분께서 비밀리에 오셨다가 공생애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오시는 공중 강림과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 공개적으로 오시는 지상 강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14:4; 살전4:14-18; 계19:11-16).

189.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휴거가 있고 곧 7년 환난기가 있으며 그 뒤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정결하게 하신 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펼쳐집니다(단9:27; 속14:4; 고전15:51-57; 계 20:1-10; 21:1-27).

190. 공중 강림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공중 강림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죽은 신약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또 살아 있는 신약 성도들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공중으로 휴거시키시며 그들에게 씌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주십니다(고전15:51-52; 살전4:15-17).

191. 부활/휴거받은 성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활/휴거를 받아 영화로운 몸을 입은 신약 성도들은 7년 환난기 동안 셋째 하늘에 있으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개개인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은 뒤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합니다(롬14:10-12; 고전3:12-15; 고후5:10; 계19:7-8).

192. 지상 강림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7년 환난기가 끝난 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신부인 신약 성도들과 함께 올리브 산에 강림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슌 14:4; 살후1:7-10; 계19:11-16).

193. 7년 환난기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기간에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정치 지도자로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계13:16-18). 또 하나님께서는 각종 천재지변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계6-11). 심지어 이때에는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마귀들이 전갈이 쏘 때 주는 고통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므로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있습니다(계9:1-21).

194. 7년 환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7년 환난기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순교하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히11:6; 계14:9-13).

195. 짐승의 표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란 적그리스도가 7년 환난기에 사람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주는 표로서 이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혼을 마귀에게 내주었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토록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계13:16-18; 14:9-11).

196.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화신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평화의 통치자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하며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경배를 요구합니다(단8:25; 살후2:3-4).

197. 교황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천주교 교황의 교회 일치 운동에 따라 형성될 '가짜 세계 교회 연합체'는 요한계시록에 음녀로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자기 등에 태우고 다니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종교의 역할이 끝나면 그의 추종자들은 음녀를 죽이고 적그리스도만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계17:1-18).

198. 교회는 7년 환난기를 통과합니까?

아닙니다. 7년 환난기는 거의 지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7년 환난기 바로 전에 휴거받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된 소망입니다(살전5:9; 딤후2:12-13; 계3:10).

199.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입니까?

7년 환난기 끝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므깃도 골짜기에 모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벌이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짐승을 붙잡아 불 호수에 던지시고 그에게 가담한 민족들을 치시며 철장 즉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계 16:16; 19:11-21).

200. 7년 환난기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난기 끝에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불거나 혹은 그를 피해 도망해서 살아남은 자들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양들과 염소들 심판’을 통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과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 넣습니다(욥3:1-17; 마25:31-46).

천년 왕국

201. 천년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을 뜻합니다(계20:1-10). 이 왕국은 본래 마태복음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땅에 세우려던 하늘의 왕국인데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 재림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마4:17; 10:5-7; 23:37-39).

202. 천년 왕국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처음에 이 땅에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사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왕국을 건설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략에 의해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왕국을 설립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하므로 천년 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3. 천년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년 왕국에서는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거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상하게 하거나 멀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사11:1-10). 이때에 유대인들은 민족들 중의 으뜸 민족이 되고(민 23:9; 24:17-19) 구약 시대의 제사장, 레위 사람, 희생 헌물 등이 다시 회복되며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겔40-48; 슥14:16-19; 말3:1-4).

204. 천년 왕국에서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수명은 다시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1,000살까지 늘어납니다(사65:19-25). 그러나 이때에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이때에 마귀가 바닥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구원받아 왕국에 들어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천년 왕국에 산다 해도 여전히 거기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첫 사람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5. 천년 왕국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1,000년이 찬 뒤에 하나님께서 잠시 마귀를 풀어 놓으시면 그가 땅의 사방에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보내 그들을 다 삼키게 하시고 마귀는 불과 유황이 넘치는 호수에 영원토록 던져집니다(계20:7-10).

영원 상태

206.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전3:21). 동시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창3:19; 마10:28; 고후5:8). 구약 성도들의 경우에는 혼이 직접 천국으로 가지 않고 땅 속의 낙원으로 갔는데 이 낙원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지금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눅16:19-31; 엡4:7-11).

207. 심판 날에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악한 자들은 죽어서 곧바로 땅 속에 있는 지옥에 가고 천년 왕국이 끝난 뒤 부활하여 정죄의 심판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불 호수에 던져집니다(시9:17; 계20:11-15).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208.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땅 속에 있는 장소로서 무시무시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시 63:9; 암9:2; 마25:41, 46; 막9:43; 눅16:19-26; 계20:10, 13-15). 천년 왕국이 끝난 뒤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심판을 통해 불 호수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정죄를 받으며 이때에 지옥과 사망 역시 불 호수에 던져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영원무궁토록 타오르는 불 호수에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209.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도들은 죽어서 곧바로 천국에 가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때에 부활받거나 휴거받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통치합니다(빌1:23; 고후5:8; 살전4:14-18). 구약 성도들과 7년 환난기에 죽은 성도들은 환난기 후에 부활하여 역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릴 것입니다(욥19:25-27; 사26:17-21; 단12:2, 13; 계20:4).

210.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광스럽고 행복한 곳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살 곳은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입니다(요14:1-3; 살전4:17; 계7:15-17; 21:3-4, 22-27; 22:1-5).

시민 생활

211.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부지런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고후2:14-16; 엡5:15-17; 히11:13-16).

212. 교회와 가정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가정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구원받고 성경에 따라 합당한 가정생활을 하며 교회로 모이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213.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국가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마22:21).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므로 국가와 교회가 연합되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국가가 교회를 혹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중세 암흑시대는 천주교가 국가 종교로서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생긴 매우 불행한 시기입니다.

214. 시민 정부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한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시민 정부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부



터 시작되었고 사형 제도는 성경에 나오는 정부가 지닌 특징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창9:6; 출18:21-22).

215.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력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단3:17-18; 행4:19-20; 5:29; 23:5; 롬13:1-7). 그러나 정부와 정부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과도하게 낙태 및 동성애를 찬성하며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을 제정하여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면 성경의 사례들과 양심에 따라 정부에 거역하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들, 다니엘서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도행전의 사도들, 이름도 없이 죽어 간 역사의 수많은 크리스천 증인 및 순교자들 등).



성경 교리의 중요성



Importance of the Bible Doctrine

오늘부터 조직 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1)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성경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교리(doctr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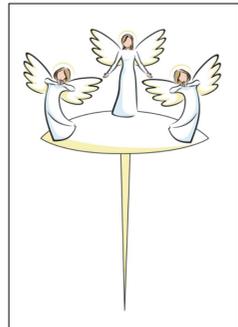
오늘은 교리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교리는 영어로 ‘닥트린’(doctrine)입니다. 영한사전을 보시면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교의 혹은 교리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변개하여 현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천주교가 지배하던 중세 암흑시대에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모여 ‘조그마한 압권 위에 천사들이나 마귀들이 몇 명이나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느냐?’ 같은 것들을 의논하면서 이런 것들을 교리로 삼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2. 교리는 분열을 가져온다

교리를 말하면 분열이 생기므로 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교회들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랑, 은혜, 긍휼 등을 선포해야지 교리를 말하고 가르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기독교 안에는 장로교,

1) 이것은 조직 신학 강의 시리즈 중 첫 번째 강의입니다. 황선연 자매님께서 녹취해 주셨습니다.
<http://youtu.be/iZlPT7SGsBM>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여러 교파가 있는데 이런 교파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교리를 말하면 교파들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을 가져오는 교리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3. 교리와 영혼 구원은 양립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많은 경우에 교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고 이리다 보니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교리는 재미없고 실제로 쓸모가 없다

실제로 이 현실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리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5. 지금 알고 있는 것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뭐 하러 더 많은 교리를 공부하는가?

구원받은 뒤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교리를 더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6.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된다

교리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리를 가르치거나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는 영어로 ‘닥트린’(doctrine)입니다. 우리가 아는 ‘맥아더 닥트린’, ‘트루만 닥트린’ 등의 말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닥트린’입니다. 이룬데 쓰이는 ‘닥트린’은 행동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트루먼 닥트린은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으로서 그 내용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원칙 즉 닥트린에 따라 그리스와 터키의 반공 정부에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원조를 했습니다.

군대에도 군사 교리(Military Doctrine)가 있는데 이것은 군대가 작전, 전역, 전투, 교전에 있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실은 성경 자체가 교리입니다.

성경적으로 교리란 ‘성도들이 믿고 가르치고 지키는 원리’를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서 교리라는 단어를 찾으면 구약 성경에 6회, 신약 성경에 45회, 이렇게 단수로 총 51회가 나옵니다.

또한 복수로도 5회 나오며 따라서 성경 전체에 교리라는 말이 총 56회 나옵니다. 이 56회 중에 구약의 6회를 빼면 나머지 50회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이야기할 때 대개는 신약 성경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기원이 있는 분이신가, 없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으신가, 사람이신가, 혹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질문들의 답이 모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모아서 남에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즉 예를 들어 천국 교리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모아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리는 결코 쓸데없는 말장난이 아니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믿고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의 역할

1. 교리는 빛과 어둠을 나눈다

교리로 인해 참과 거짓이 나뉘게 되고 또 생명과 사망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마10:34-35)

예수님의 진리 즉 그분의 바른 교리가 들어가면 마귀의 거짓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 없고 그래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리를 제시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족하거나 모임에 분열이 생기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²⁾

성경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 기간에 하늘의 진리인 교리를 설교하셨는데 그 결과 그분은 곳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올바른 진리가 들어가니까 어둠과 악의 세력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분열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생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 즉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고 참과 거짓이 나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 교리와 영혼 구원은 항상 양립한다

이 말은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영혼 구원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교리에 해박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를 서신서에 기록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정통하면 영혼 구원에도 더 많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리와 영혼 구원은 두 개가 같이 나아갑니다. 교리가 강하면 영혼 구원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은 원이 사각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는데 교리가 없다는 것도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영혼 구원 이 두 개는 서로 양립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교리를 알면 열정에 차게 된다

교리는 재미없고 실제로 현실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다 모아서 올바로 제시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로 여겼던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교리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경기록들이 열리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2) 이 말은 모든 모임에서 교리로 인해 항상 분열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의 핵심은 진리가 들어가면 결국 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둠던 방에 창문을 열어 밝은 빛이 들어오게 하면 빛이 없을 때에는 안 보이던 먼지들이 잘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 아무것도 모른 채 성경을 읽는 것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어긋남이 없도록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라 뜨거운 열망이 생키며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계몽이 되고 계몽이 되면서 더 진리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교리를 더 많이 자세히 확실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의 교리는 필요 없고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명령입니다. 그 열 가지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만 알면 사실 큰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도 알고 둘째도 알고 셋째도 알고 이렇게 해서 열째 명령까지 다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총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는 아주 조그마한 진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아주 조그마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를 가진 채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의 사실,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진리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³⁾ 그런데 실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두 교리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을 아기로 지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3) 이런 기본 진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불리며 고전15:1-5는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 준다.

이렇게 말씀의 순전한 것을 자꾸 먹으면 교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성경을 들이파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5. 교리가 있어야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히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뿌리가 있어야 나옵니다.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7-23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매우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에게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 같은데 실제로 무언가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열심에 차서 열심히 일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하고 십일조하고 주일성수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고 선언하시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구원받은 다음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는 전혀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평생토록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고 심판의 결정을 내리시면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는 쓸데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바로 이것이 교리이며 그래서 교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에게는 교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조직적으로 검토한 뒤 요약하면 조직적인 교리 공부라 되고 모든 교리들을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요약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조직 신학(Systematic theology)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 전체에서 모으면 그분에 대한 교리 즉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 주는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리의 중요성

1. 교리는 독극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 준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13-1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 상형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네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네게 주어진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네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가 너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말세에는 특별히 유희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며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리가 확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다락방, 베레아 등의 이단 혹은 사교 집단의 속임수에 넘어갈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리가 없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서 그런 데 넘어갑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이상한 구절 한두 개를 발췌해 가지고 와서 들이밀면 “아 그 말이 맞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것은 엄청난 비밀인가 보다.”하면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독극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다 성경의 교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 교리는 안정감과 평안을 준다

에베소서 4장 11-15절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오로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14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바울 당시에도 몰래 숨어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자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이들은 간교한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단 교리를 전하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면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에 거처럼 밀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탁탁 발로 차면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평생토록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상태로 지내다가 겨우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교리가 확실해서 성경 말씀이 어떤 주제에 대해 무어라고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진위 여부를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3.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준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세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나가시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메시아 왕국이 연기가 뿜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가 되는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불순종하다가 AD 70년에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뒤 약 1,9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지금 거의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도 실제로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구약식 관습대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에 따라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역사,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며 그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의 이 모든 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경륜(경영 통치)의 역사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연구하고 이런 교리들을 잘 공부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물을 때 겸허한 자세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14-16).

4. 교리는 영적인 선물(은사)들을 알려 준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음을 보여 줍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믿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선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이 주어졌으나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고전12:1, 4, 8-11).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선물들이 과연 이 시대에도 이전과 같이 유효할까요? 예를 들어 방언(타 언어)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언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약 40년 동안 방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왕성하게 성도들 사이에 있었는데 과연 그 방언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사도가 있을까요?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도 대언자가 있을까요?

지금도 손을 댄 어디에 딱 갖다 대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것들을 물으면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이 무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고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해야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5. 교리는 재림과 휴거에 대해 알려 준다

요즘 휴거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하여 공중으로 들려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휴거(rapture)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특히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휴거와 재림에 대해 물으면 우리가 무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을 모두 포함하는 약 7년 정도의 사건이며 공중 강림 때 휴거가 이루어지고 지상 강림 때 이방인 민족들이 심판을 받으며 그 둘 사이에 7년 환난기가 있습니다. 7년 환난기 이후에 땅에서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뒤에 이 땅이 정화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10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처럼 휴거와 재림 같은 중요한 교리도 성경으로 가서 진지하게 연구해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의 차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차이를 알지 못해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으며 불안에 떨다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인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비교		
	공중 휴거/옮겨짐	지상 강림/왕국 확립
1	모든 성도들이 체여 올라감	체여 올라가는 일이 없음
2	체여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로 감	체여 올라간 성도들이 땅으로 돌아옴
3	땅이 심판받지 않음	땅이 심판을 받고 공의가 확립됨
4	표적이 불필요하고 언제라도 발생 가능함	예언된 표적들, 환난기 이후에 발생함
5	구약에는 없음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음
6	성도들에게만 해당됨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줌
7	주의 진노의 날 이전에 일어남	주의 진노의 날을 끝냄
8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탄이 결박됨
9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심
10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심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
11	그분의 백성만 그분을 봄	모든 사람이 그분을 봄
12	환난기가 시작됨	천년왕국이 시작됨

6. 교리는 성도들을 세워 준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 구절의 끝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7. 교리는 성도를 무장시켜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이 구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 교리의 확립임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고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갖고 그렇게 성경을 치밀하게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남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단어)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인 성경이 기록된 1차 목적은 우리가 교리를 바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교훈’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원래 뜻이 ‘교훈’이 아니라 ‘교리’입니다. 교훈은 이솝 우화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책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올바른 교리 즉 ‘닥트린’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위에서 보듯이 성경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 ‘for doctrine’(닥트린) 즉 교리의 확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는 ‘닥트린’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글로 기록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말씀하듯이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아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도들이 성경의 교리를 바로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성경을 조직적으로 들고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한 뒤 그것들을 남들에게 제대로 조직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사와 목사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음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리라(암8:11-13).

잘못된 교리는 이단을 양산한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잘못된 교리들인지 그리고 이것들의 악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경에 위배되는 ‘사람들의 전통과 명령’은 잘못된 교리이다

우선 마태복음 15장 9절, 마가복음 7장 7절에는 ‘바리새인들의 교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마15:9).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당시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들, 그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천주교회가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교황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교회가 만들어온 전통 같은 것들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만든 데가 바로 로마 카톨릭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하면 예수님의 저주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장로교회의 대부분이 칼빈주의를 추종합니다. 칼빈주의란 장로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체제 즉 인간이 만든

체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목자로 삼고 그 사람의 신학 체제대로만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강요당하면 우리는 멸망과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칼빈, 웨슬리, 러크맨, 이만희, 안상홍, 조용기 등이 우리의 신학 체제의 안내자요, 절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OO주의, 특히 사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체제는 위험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존 칼빈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성경 말씀에 배치되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칼빈주의자들의 많은 교리는 성경에 배치됩니다.

교회마다 목사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나 강해가 성경 말씀에 배치되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독자들 가운데 어떤 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나 교사의 위치에 서면 그분도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성경과 비교해서 제가 선포한 설교가 틀리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성경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성경은 100% 옳고 저는 틀릴 수 있으니 그런 경우 저를 버리고 성경을 좇아가십시오.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사람들의 전통이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같이 보이니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골2:20-23).

사도 바울 당시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만든 명령들과 교리들 즉 법칙들과 규칙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나 규칙이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거나 성경 말씀에 배치되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억누르는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들을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리를 충분히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 마귀들의 교리는 잘못된 교리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마귀도 교리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나타난 자들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리도 있고 마귀도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수도룩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삼위일체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결과 목사와 성도 모두 마귀들의 교리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양태론이라는 마귀의 교리를 가르칩니다.⁴⁾ 양태론이란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며 자기 아내에게는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는 하나지만 대상에 따라 모습(형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명백한 이단 교리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 심지어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들도 - 양태론을 가르칩니다.

이런 눈먼 목사의 뒤를 따라가는 눈먼 성도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감성팔이 설교, 유머, 콩트, 연극, 장풍으로 뒤로 쓰러뜨리기, 금이빨 만들어 주기 등 사람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분별은 전적으로 성경적 교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3.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은 잘못된 교리이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유치하고 독특하며 이상한 교리들로 사람을 유혹하여 먹이로 삼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교리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빠진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나쁜 교리들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계

4) 이것의 원래 이름은 양태론적 단일신론(Modalistic Monarchianism, Modalism)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성하지만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론과 대조가 된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양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설이다. 이 설은 성육신 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신다고 말한다. 이 이론은 아버지와 아들의 용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성령 하나님은 별개의 독립된 개체가 아닌, 활동하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인다고 이 이론은 주장한다. <위키백과>

시록 2장 14절은 발람이 가르친 교리를 언급합니다. 발람은 모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름을 날리던 거짓 대언자요 점술가였습니다(신23:4). 성경은 그를 유프라테스강가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민22:5; 벨후2:15-16)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저주를 바꾸어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민22-24장). 하지만 시팀에서의 ‘바알브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음행을 동반한 우상 숭배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민25장; 31:16; 계2:14-15). 신약 성경은 그를 가리켜 불의의 샴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 결국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의 표본이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단자의 상징적인 이름이요, 또 사악한 우상 숭배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벨후2:15; 유1:11; 계2:14).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음행이나 육신적 음행을 조장하는 발람의 교리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니골라당(Nicolaitans)이라는 이단이 나옵니다(계2:6, 15).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니골라당은 일반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성도들을 억눌러서 통치하려는 자들입니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계 2:15).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회는 아직도 구약 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를 제사장(priest)이라 부르고 있고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교회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pastor)가 감독이나 장로로서 교회를 치리해야 함을 보입니다.⁵⁾

잘못된 교리와 이단을 피해야 한다

1.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피해야 한다

로마서 16장 17-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mark)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으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여기서 주목하라는 말은 마크해서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시하여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교리가

5) <성경 바로 보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 쪽의 QR 코드를 찍으면 이 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책들을 모두 무료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개정4판

개정4판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지음
정동수 외 옮김


그리스도
예수안에

성경

바른 성경 바른 해석 바른 구원

바로 보기

라킨 외 지음 / 정동수 외 옮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딤후2:15)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어야 어떤 사람이 전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판단하고 옳지 않은 것을 전하는 자들을 마크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교리에 밀려다니면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13-15절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성장 과정과 최종 목표를 보여 줍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3절의 ‘이로써’는 1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도들이 목사 겸 교사로부터 정확한 말씀을 공급받아서’를 말합니다. 이 일을 잘해서 교리가 든든한 성도는 결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고 확고하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네게 간청하여 *네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목사는 성도들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상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파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런 교리가 교회를 흔들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목사와 교회의 리더들은 늘 이런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방언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쳐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방언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오순절 은사 운동,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등 감정에 호소하는 일들로 사람들을 모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올바른 교리로 잘 가르치는 목사를 택해야 합니다.

건전한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

1. 목회자에게는 건전한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

잘못된 교리에 반대되는 것을 성경은 '건전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교리라는 말은 총 56회가 나오며 이 가운데는 '건전한 교리'라는 말이 네 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의 '건전한 교리'는 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에만 나옵니다. 즉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인 이 세 책에만 '건전한 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하는 목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는 '건전한 교리'로 충만해서 '건전한 교리'만 가르쳐야 합니다.

세 권의 목회 서신서 안에는 교리라는 말이 총 17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목회 서신서는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글들 안에 교리라는 말이 무려 17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남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는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 성도들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

디모데후서 4장 3-4절에서 바울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지금 바로 그런 때가 아닙니까? 현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 줄 선생들을 모아 두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감성팔이 예화, 웃기는 이야기, 목사가 춤추고 유행가 부르기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왕 제이씨 페니(J. C. Penny)나 금융 재벌 록펠러(John. D. Rockefeller), 치약 및 비누 등을 팔아 돈을 번 콜게이트(William Colgate)처럼 십일조와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의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며 성경은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강타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리를 잘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해야 한다

교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신약 교회에서는 장로, 목사, 감독이 다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즉 성경적으로는 장로가 곧 목사이, 감독입니다. 이 사실도 교리입니다.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두 배나 더 존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목사가 말씀과 교리를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구비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딤후 3:2)

이 세상에서 교리를 가장 잘 가르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매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마 7:28-29).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등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하나님의 진리인 교리를 가르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말씀에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 있게, 명쾌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가장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리 안에 머물 때 성장이 이루어진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사도들이 전달해 준 교리 안에 성도들이 거하니가 교회가 부흥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행2:42-47).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반드시 성경의 교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는 사도들이 알려 주었으므로 목사는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하여 사도들의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 교회의 거의 모든 교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외의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저주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갈1:8-9).

성도들이 이러한 교리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리를 공부하지 않아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고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히5:12-13).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성경 교리의 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롬6:17-18).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1. 성경
2. 삼위일체 하나님
3. 아버지 하나님
4. 예수 그리스도
5. 성령 하나님
6. 사탄과 천사들
7. 사람
8. 죄
9. 구원과 성화
10. 교회
11. 예언(종말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는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들을 차근차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바울은 이 구절 바로 다음 절에서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건전한 교리가 아닌 것들은 다 마귀의 교리이며 쓸데없는 것들로서 성도를 파멸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딤후2:16-17).

교리의 중요성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들어와서 굳게 확립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긴 신앙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의 경우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순으로 잘 확립되면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끝으로 건전한 교리를 배우려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법칙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 작자 미상

이 원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조직적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무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잘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첫째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견재하며
그 망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